



고산농협주부모임 공동사업 양파 수확

고산농협(조합장 고영찬) 농가주부모임(회장 강명옥)은 지난 9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공동소득사업으로 재배한 조생양파를 수확했다. 농가주부모임은 매년 조생양파 시범포를 직접 운영해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기술 향상과 품질 좋은 종자를 양파 농업인에게 보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농가주부모임은 지난해 제주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 양파즙 나눔, 농촌 어르신과 경로당에 동지팔죽·김장김치 나눔, 건강한 여름나기 미숫가루 나눔, 마늘·감귤 일손돕기 등 활발한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면서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실시한 NH나눔리더 단체상을 수상했다. 시상금 200만원은 이달 8일 협동조직장 회의 및 사업추진 결의대회에서 고산지역아동센터와 한경원 광소규모 요양원에 각각 100만원씩 지정 기탁했다.



강명옥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조생양파시범포 위탁 운영과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수확한 양파로 장아찌를 만들어 지역 어르신과 복지시설에 나눔봉사를 계획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라동-(주)한라양계 복지지원 업무 협약

제주시 오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현호경·양국남)와 농업회사법인 (주)한라양계(대표 김해규)는 지난 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식품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한라양계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계란 50만개를 지원하고, 오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식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건강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남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력 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녀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 프로그램

제주도 해녀박물관은 지난 8일 서귀포시 수산초 등 도내 12개교 초등학생 26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우수성과 보존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2014년 이후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173회에 걸쳐 실시해 왔다.



은성사회복지관 김치만들기 체험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환)은 지난 10일 관내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함께 김치담그기 체험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진행된 김치담그기 행사는 제주시의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정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김치 문화에 대해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녘도서관 바느질 교실 개강



동녘도서관(관장 양문식)은 평생교육동아리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기발전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바느질 교실'을 지난 11일 도서관 평생교육실에서 개강했다.

이번 바느질 교실에서는 헤링본 무늬 가방 만들기를 내용으로 코바늘 기본 헤링본 무늬 기법을 익히며, 관련 소품을 만들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속 눈물의 생일잔치



노인의료복지시설 연화원(원장 고병률)은 지난 12일 요양원에서 100세를 맞이한 양순옥 어르신과 99세를 맞이한 이평수 어르신의 생일잔치를 열었다.

이날 생일잔치는 코로나19로 가족 면회가 어려워지자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연화원 관계자들이 가족들을 대신해 마련했다.

자녀들은 비대면으로 창 밖에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며 손자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손자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물로 생신을 축하했다.

제주도연합청년회 애서원 등에 쌀 후원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회장 장현)는 지난 12일 사회봉사법인 청수 애서원(원장 임애덕)과 아기사랑엄마의집(원장 김성희)을 방문해 쌀(10kg) 50포씩 총 100포를 후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는 이·취업식을 기념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쌀을 후원했다.

건입동새마을부녀회 마농지 전달



제주시 건입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문명선)는 지난 10일 회원들과 마농지를 만들어 건입동 어려운 가구에 전달해 나눔 김만덕 정신을 실천했다.

이번에 전달된 마농지는 농산물 소비촉진 및 나눔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건입동 내 취약계층 등에 전달됐다.

동정

고령장애인 노후 준비 지원방안 모색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고령장애인 노후 준비와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

화북동주민참여예산학교서 현안 논의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16일 화북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화북동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지역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

4·3동부지회 현장간담회 참석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 15일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청년 4·3교육 확대를 위한 4·3동부지회 현장간담회'에 참석할 예정.

일도1동 주민자치위 정례회의
◇김장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14일 일도1동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4월 정례회의'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

상호금융예수금 8조원 달성탑
◇강승표 농협제주지역본부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기여건에서도 최근 도내 23개 농·축협 상호금융 예수금 8조원을 달성하며 상호금융예수금 달성탑을 수상.

동광초 에니어그램 교사연수



제주시 동광초(교장 김지혜)는 에니어그램 심리연구소의 이은하 소장(경희대 교수)의 강의로 '에니어그램의 거울로 아이들의 마음 비춰보기'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에니어그램 연수는 동광초 특색활동인 '몸 건강 마음 건강', '맞춤형 속속 학력'의 일환으로 기획돼 오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돼 관계 형성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